

# ‘위안부’, 그리고 중국 항전문학<sup>1</sup>

왕쉐전(王學振)<sup>2</sup>

역자

김성화(金星花): 남통대학(南通大学) 교양외국어과 전임강사

장수희: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 
- 1 현재까지 중국 학계에서 ‘항전문학’에 대한 통일되고 고정된 정의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간단히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1931년 ‘9.18 사변’ 직후 일본은 대규모의 중국 침략전쟁을 발동했다. 중국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여 싸운 전쟁은 세계 반파쇼 전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를 간단히 ‘항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항전문학’은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시기 생산된, 항전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여러 장르의 문학을 일컫는다.
  - 2 이 글은 저자 왕쉐전의 동의를 얻어 2012년에 중국 등재지에 실린 논문 「抗戰文學中的慰安婦題材」(『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12년 第4期, 107-113쪽)를 번역한 것이다. 왕쉐전(王學振, 1969~, 중국 호북성 출생), 현재 중국 해남사범대학교(海南師範大學校) 문학원 원장 및 교수로서 오랫동안 항전문예, 중국현대문예사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중국 국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다수 진행했고 중국 등재 학술지에 백 편에 가까운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대표 저서로는 『民族主義與中國文學的現代轉型及話語嬗變—晚清至民國(민족주의와 중국 문학의 현대적 전환과 언어의 변환-청에서 중화민국 시기까지)』(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 『抗戰時期大后方文學片論(항전시기 대후방문학 연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등이 있으며 최근작으로는 『抗戰文學的歷史還原(항전문학으로 역사 제대로 읽기)』(花木蘭文化出版社, 2021)가 있다.-역자

제2차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은 최악이라 할 수 있는 ‘위안부’ 제도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한·중·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수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짓밟혔다. 중국 항전문학에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존재한다. 살펴보자면 이 작품들은 전문 작가 외에 학자, 기자, 고급장교 등 다양한 부류의 당대 인물들에 의해 창작되었고, 장르적으로는 소설, 한시, 르포문학과 가극 등을 포함하며, 내용적으로는 ‘위안부’의 피눈물이 담긴 비참한 생활에 대한 묘사 나아가 ‘위안부’의 저항과 각성에 대한 예찬도 들어있다. 한편 작품의 사상적 측면에서 보면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주의, 인도주의적 경향과도 결합된 특징을 드러내며, 일부 작품들은 5.4 신문화 운동 이래의 계몽적 경향을 그대로 갖고 있기도 하다.

핵심어: 항전문학, 위안부 제재

“‘위안부’는 일본 정부나 군대의 명령으로 일본 군인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해 성노예가 된 여성들을 가리킨다. ‘위안부’ 제도는 제2차세계대전 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 시스템을 계획적으로 구축하여 각국 여성들을 강제로 병사들의 성노예로 만든 제도로, 일본 파시즘이 인도주의를 배반하고 양성 윤리와 전쟁법을 제도적으로 위반한, 명백한 정부 차원의 범죄이다.”<sup>3</sup> 제2차세계대전 중 중국과 한국, 일본 등지의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20세기인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차츰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의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항전문학 연구 분야에서 현재까지 ‘위안부’ 소재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위안부’ 관련 문헌을 발굴하고 텍스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항전문학의 다

3 苏智良·姚霏, 「将还原历史,披露现实,献策未来一肩担起——苏智良教授访谈录[J]」, 『甘肃社会科学』, 2011(5).

채로움을 알리고, 이를 통해 문학으로 역사를 증명하여 역사 연구를 위한 방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일본군이 실시한 위안부 제도는 “세계 여성사상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기록 중 하나”이자 “문명 세계의 치욕”<sup>4</sup>이라 할 수 있는바 그 죄악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범죄의 범위나 정도가 증대하고 심각한 “제도화된 국가범죄 행위”는 한 시대를 기록한 항전문학 속에 어떻게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오랜 기간의 항전문학 읽기와 연구 활동에 종사하면서(그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위안부를 제재로 한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양적으로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전문 작가, 학자, 기자, 고급장교 등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 창작되었고 소설, 한시, 르포르문학과 가극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세간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주목을 받은 작품은 덩링(丁玲)<sup>5</sup>의 소설 「내가 샤촌에 머물렀을 때(我在霞村的时候)」(『중국문화(中国文化)』 제2권 제1기, 1941년 6월 발간)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전전(贞贞)은 일본군에 잡혀가 수많은 일본군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는데 이는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작품 속 이 부분에 주목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자면 일본학자 나카지마 미도리(中島碧)는 “여주인공 전전은 과거에 일본군에 납치당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다”<sup>6</sup>고 했고, 중국학자 동빙위에(董炳月)는 젠더 시점에서 “이 글은 여성의 고독과 곤경을 표현한 소설로, ‘오로지 여성을 위한’ 작품이다.”라고 평가했다. 동빙위에는 전전이 ‘위안부’가 된 경위에 대해 굳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가

4 苏智良, 『慰安妇研究[M]』, 上海:上海书店出版社, 1999, 13쪽.

5 丁玲(丁玲, 1904-1986). 1932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중일전쟁 때에는 연안으로 들어가 중국문예협회 주임, 『해방일보』 편집등을 담당했다. 1949년 공산당의 승리 후에 토지개혁운동을 바탕으로 한 소설 『太陽照在桑干河上(태양은 쌍간강에서 빛난다)』(1948)로 중국인 최초 스탈린상을 수상(1952)했다.-역자

6 中島碧, 「丁玲论[A]」, 『丁玲研究资料[c]』, 天津:天津人民出版社, 1982.

쓴 글의 제목은 “전전은 ‘위안부’”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sup>7</sup>

딩링의 「내가 사촌에 머물렀을 때」를 놓고 일부 학자들은 “중국 항일전쟁 시기 신문학 작품 중 ‘위안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작품일 것이다”<sup>8</sup>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필자의 고찰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중국 현대문학사상 유명한 여성 작가인 시에빙잉(谢冰莹)은 일찍이 일본군 ‘위안부’ 메이즈(梅子)<sup>9</sup>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메이즈 꾸냥(梅子姑娘)」을 창작했다. 이 소설은 1941년 5월에 완성되어 이듬해인 1942년 12월에 『문학창작(文学创作)』 제2권 제1기에 발표된 후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훗날 충칭출판사에서 편집 출판한 『중국 항일전쟁기 대후방 문학전집(中國抗日戰爭時期大後方文學書系)』(1989년) 소설편 제4집에 수록되기도 했다.

중국 현대 최초의 대형 가극 〈치어우즈(秋子)〉 역시 ‘위안부’를 소재로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극 중 주인공 치어우즈는 중국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온 일본인 ‘위안부’이다. 이 극은 천딩(陈定)이 각본을 쓰고, 장윈위엔(臧云远)과 리자(李嘉)가 작사, 황위엔루어(黄源洛)가 작곡을 담당했다. 또 왕페이룬(王沛纶), 스둥산(史东山), 마앤시양(马彦祥), 우샤오방(吴晓邦), 천리팅(陈鲤庭), 허멍푸(贺孟斧), 잉윈웨이(应云卫) 등 10명의 유명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았고, 출연진은 102명의 중국 실험가극단 배우와 32명 규모의 악단으로 구성되었다. 1942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충칭귀타이(重慶國泰)대극장에서 초연된 후 충칭, 청두(成都) 등 도시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펼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통신 기사와 르포 등 논픽션 작품들은 당대 현실을 기반으로 실제로 발생했던 ‘위안부’ 문제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군이 양저우(揚州)를 점령했을 당시 “황군(皇軍)”으로 와 있던 일본군 남편과 ‘위안부’가 된 아내가 위안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수치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은 함께 자살한다. 이 사건은 얼마 후 바오위(鮑雨)에 의해 「양저우의 일본군은 자살하고 있다(揚州的日兵在自杀)」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며 1938년 6월 18일

7 董炳月, 「贞贞是个“慰安妇”——丁玲《我在霞村的时候》解析[J]」,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2005(2).

8 董炳月, 앞의 글.

9 이 글에서 언급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일본인의 이름은 한자를 직접 읽는 중국의 관습을 고려하여 일본어 발음이 아닌 중국어 발음 그대로 표기했다.-역자

출판된 『항전문예(抗战文艺)』 제1권 제9기에 게재되었다. (이 사건은 가극 〈치어우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또 1944년 9월 중국군이 텡충(騰冲)을 탈환했을 때 일본군 ‘위안부’ 10여 명을 포획했는데 이 사건은 『대공보(大公报)』의 종군기자 판스정(潘世征)이 취재와 보도를 담당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군의 종군 영기 조사-텡충성 안 불쌍한 인간들(敌随军营妓调查——腾冲城内的一群可怜虫)」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대공보』, 『소탕보(扫荡报)』, 『텡충일보(腾越日报)』 등 신문에 여러 차례 실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적군에 짓밟힌 여성 동포-치시엔 통신(在敌人践踏下的女同胞——淇县通讯)」(메이란[梅兰], 『군중(群众)』 제1권 제12기, 1938년 3월 5일), 「피값(血债)」(왕베이밍[翁北溟], 『승리(胜利)』 제7호, 1938년 12월 24일), 「쿤밍통신(昆明通讯)」(『신화일보(新华日报)』, 1944년 2월 3일 게재), 「일구폭행기략(日寇暴行纪略)」(국민정부군사위원회 정치부편, 1938년) 등의 논픽션 작품들에서도 일본군이 중국 여성들을 기만, 협박, 약탈하여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항전 시기의 한시 중에도 ‘위안부’를 모티브로 한 것이 있다.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1급 육군 상장(上將)이었던 평위시양(冯玉祥)은 1938년 9월에 「난징의 한 소녀(南京一少女)」라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위안부’가 되지 않으려 했던 난징의 한 소녀의 절개를 칭송하는 것이었다. “난징의 한 소녀, 적군에게 잡혀갔네. 영기(营妓)가 되라고 명령받아, 필사적으로 저항했네. 독방에 가두어져, 하루 종일 먹지 못했네. 문을 부수고 탈출하니, 3명의 적군이 가로 막았네. 소녀는 식칼을 찾아, 있는 힘을 다해 적들을 찔렀네. 세 명의 적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하찮은 목숨을 건질 수 없었네. 소녀는 생각하네, 나는 이 새장에서 나가기 어렵구나. 나 혼자서 3명의 적군을 죽였으니, 밀진 것은 아니네. 하하하 웃고 나서, 칼을 들어 스스로 죽음을 택했네. 그녀의 절개는 실로 존경스러워,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네. 그녀는 한 명의 소녀였지만, 3명의 적을 죽일 수 있었네. 생각해보라,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전통극 역사 전문가인 왕지스(王季思)는 항전 시기에 다수의 한시와 사(詞)를 창작해서 시사집 『바람을 넘어(越风)』를 출판했다. 그가 1937년 가을에 쓴 「조선소녀음(朝鲜少女吟)」은 조선인 ‘위안부’의 슬픈 처지를 읊은 우수한 작품이다. 이 시의 서문은 작품의 창작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아군이 신향(新乡)을 기습했다네, 적

군 10여 명이 붙잡혔네. 그중에는 조선인 소녀 2명이 있었는데, 적군에 의해 ‘위로반(慰勞班)’ 명목으로 전쟁터로 보내져, 적에게 유린당했다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조선인 소녀로, 매우 비통한 시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비단 장막으로 가을 바람이 들어오고, 새로 꽃은 화병의 꽃은 흐느끼네.  
더 애틋한 사람이 있음을 아는가, 비단 치마에 피 얼룩이 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네. 원래 한성에 살고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시름 속에 던져졌네. 화장을 마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청루(靑樓)에 나가네. 승냥이와 이리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에서 매일 곡소리가 들리네. 남자는 전쟁터에 내몰려 죽임을 당하고, 여자는 사지로 끌려가네. 조선총독부는 공문을 내렸네. “전방의 전선에 위로가 필요하다. 민간 여성은 혼인을 금지한다. 황군의 징모를 기다리라.” 젊음과 아름다움은 스스로가 가엽기만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근심 걱정으로 애태우시네. 남자 아이를 낳아도 여자 아이를 낳아도 모두 가망이 없다네, 나라가 무너지고 집안이 망했으니 당연한 이치라네.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성곽을 지났네, 서른여섯 명이 같은 날 출발했네. 친척 친구들과 이웃들은 감히 전송하지 못하고, 멀리서 자옥이 날리는 차 먼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네. 고향의 산은 점점 멀어지고 풀은 점점 푸르러가니, 남쪽으로 얼마만큼 멀리 왔는지 알 수가 없었네.

밤에는 귀신 무덤 사이를 지나가고, 새벽에는 소와 양떼를 쫓으며 갔네. 남들 앞에서 억지웃음을 짓고, 거울 앞에서 화장하며 슬퍼하네. 같이 온 언니 동생들 몇 명만 살아남아, 몰래 만나면 서로를 위로했네. 동쪽 이웃집 동생은 꽃다운 열여섯 살 처자로 옛 왕비 민씨의 친족이었네. 깊은 밤 나지막이 흐느끼는 소리 들리더니 새벽녘에 깊은 골짜기에 시체로 버려졌네. 남쪽 이웃에 살던 과부 최씨 언니는 세 살짜리 유복자를 집에 둔 채 끌려왔다네. 하루 종일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니, 상점한 피골만 남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네.

가고 또 가서 황폐한 마을에 도착하여, 멀리 강을 바라보니 깊은 슬픔

이 느껴지네. 황하의 탁한 물결이 하늘로 솟구치고, 테링(铁岭)의 차가운 구름은 해를 가려 어둑어둑하네. 구름이 모이고 황하가 울부짖으니, 중화의 정신은 오래오래 전해지리니. 중국 대군이 하룻밤에 신상(新乡)을 탈환하니, 오백 명의 왜놈들 모두 머리를 숙이네. 망가진 트럭이 어지러이 널려있고, 병사들은 뿔뿔히 흩어져 우마처럼 황급히 도망가네. 외롭고 나약한 여자가 의지할 곳이 있겠는가, 진흙탕 속에 떨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네. 포로가 되면 군인에게 죽는 줄 알아서, 치료해준다는 장군의 말을 믿지 못했네. 정성스러운 간호는 위로가 되었지만, 꺾인 꽃가지는 시들어가네. 몸은 다시 회복되었는데, 향기는 남아 있어도 뿌리가 없네. 아이고! 한성의 성벽은 높고 한강은 깊다네, 누가 강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줄까? 끝없는 망국의 한을 알고 싶다면, 조선 소녀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오.<sup>10</sup>

수즈량(苏智良)은 ‘위안부’의 형태를 장기 ‘위안부’와, 단기 ‘위안부’로 나누었는데 이때 “장기 ‘위안부’란 비교적 오랜 시간 위안소 안에 머물면서 ‘위안’을 했던 여성이고, 단기 ‘위안부’는 임시로 일본군 거점이나 위안소에 가서 ‘위안’을 강요당한 여성이다.”<sup>11</sup>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한다면 항전문학 중 ‘위안부’와 관련된 작품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덩링의 다른 소설 「새로운 신념(新的信念)」 중 57세 할머니와 열세 살 손녀는 모두 “단기 ‘위안부’”로 볼 수 있다. 소설은 그녀들이 일본군대에 끌려가 “위안품”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어떤 작품은 “위안(慰安)”, “위로(慰劳)”, “군기(军妓)”, “영기(营妓)” 등의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내용상 ‘위안부’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천쇼우주(陈瘦竹)의 장편소설 『춘레이(春雷)』에는 메이(梅) 아주머니가 일본군에게 불러가는 등의 스토리가 있다. 또 아이우(艾芜)의 소설 「굴레 밑에서(鞭下)」에는 일본군 병사들이 장교들의 명령하에 줄을 서서 외국 목사들이 설립한 난민 구역에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매국노가 ‘매창녀-노래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

10 陈汉平, 『抗战诗史[M]』, 北京:团结出版社, 1995, 172-173쪽.

11 苏智良, 앞의 책, 226쪽.

성'이라고 지목하는 평범한 민간인 여성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안”하러 끌려 갔던 것이다.

## 2.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위안부’ 소재의 항전문학 작품은 내용적으로 위안부의 피눈물 나는 생활에 대한 리얼리즘적 재현 혹은, ‘위안부’의 저항과 각성에 대한 뜨거운 예찬을 보여주기도 한다.

‘위안부’들은 일본 군인의 성적 욕구를 푸는 도구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해를 입었고, 생명조차 수시로 위협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위안부’ 소재의 항전문학 작품은 ‘위안부’ 모집, 그들이 처했던 상황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위안부’들의 피눈물 나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 국내의 경우 군국주의 사상의 선전과 영향으로 인해 일부 일본 여성들은 자신의 몸으로 일본군 병사를 “위로”하는 것은 천황에게 충성하는 것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 모집에 응하여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기도 했다. 시에빙잉의 「메이즈 꾸냥」 속의 메이티엔즈(美田子)가 바로 이런 ‘위안부’의 전형이다. 또 다른 ‘위안부’ 주엔즈즈(媿枝子)가 ‘위안부’들의 비인간적인 생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메이티엔즈는 “또 누가 투덜거리는 거야? 할 일이 그렇게 없어? ‘황군’의 위로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도대체 뭐가 불쾌하다는 거야?”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메이티엔즈처럼 자원하여 ‘위안부’가 된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절대 다수의 ‘위안부’, 특히 중국, 조선 등 피압박 국가 출신의 ‘위안부’들은 일본군이 기만, 매매, 강제, 약탈 등의 악랄한 수단으로 징모해온 여성들이었다.

일본군과 매국노는 종종 위문, 노동자 모집 등의 명목으로 부녀자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위안부’로 전락시켰다. 「메이즈 꾸냥」에서 메이즈는 바로 이렇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다. 약혼자인 텅티엔(藤田)이 징집되어서 중국의 전쟁터로 가게 되자 메이즈도 위로단에 참가해 중국에 왔다. 원문대로라면 “목적은 중국의 제2의 맹강녀가 되어 만 리 길을 걸어 약혼자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위



로대란 단지 천인침(千人針), 깃발, 통조림, 손수건, 위안품 가방 등의 물건을 일본 병사에게 주는 단순한 일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 큰 함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한커우(漢口)에 도착하자마자 영기로 보내져서 “야만적인 관병들의 성욕을 푸는데 공급”되었다. 다른 한 편의 소설 「혈채」는 일본군이 절강성(浙江省) 서부를 침략 점령한 후 중국 민가의 여성들을 속여 ‘위안부’로 만든 죄악상을 기록했다. “매국노는 상해의 어느 큰 공장에서 여공을 모집한다고 속였다. 그래서 시골에 사는 같은 또래의 빈곤하고 무지한 여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그 모집에 많이 응모하였다. 일본군은 먼저 매국노를 시켜 예쁜 여성들을 골라서 뽑게 한 후 상해 홍커우(虹口)로 배를 태워 보냈다. 이들은 일본인이나 조선 낭인(浪人)들이 운영하는 기생집에 팔려가 창녀가 되었고 이 불구덩이 같은 매음굴에서 일본군의 성욕을 푸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춘레이』에 등장하는 일본군 역시 방직 공장 여공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시골 여성을 속여 끌고 가 강간하는 음모를 꾸몄다.

기생집(妓院) 주인과 결탁하여 가난한 부녀자들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징모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일본군의 중군 영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일본군은 영기 제도를 만든 후 조선에 사람을 파견하여 가난한 여자아이들을 모집해오도록 했다. 이들은 조선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어머니나 부모가 없는 여아들을 산 뒤, 양녀로 삼아 중국에 데리고 와 일본군에 공급했다.” 이 보도는 텅충에서 ‘위안부’들과 함께 포로로 잡힌 두 명의 조선인 여자 포주가 인신매매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녀들 중 한 명은 원래 남편과 같이 중국 동북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다른 한 명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각자 10여 명의 여자아이들을 사서 텅충으로 일본군을 “위안”하러 왔던 것이다.

일말의 수치심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일본군은 공공연히 한·중·일에서 강제로 ‘위안부’를 징모했다. 「적군에 짓밟힌 여성동포-치시엔 통신」에는 일본군이 페이툰(裴屯)에 들어와서 연보관공처(聯保辦公處) 주임이란 자를 잡자 겁에 질린 주임은 매국노 리산니우(李三妞)와 한패가 되어 일본군과 함께 18명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 모집하여 삼신 사당으로 보내 일본군에게 농락당하게 했다. 『쿤밍통신』은 일본군이 중국 여성들을 강제로 징모하여 위안소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다

음과 같이 보도했다. “일본군은 작년에 누차 우리 텡베이(騰北)를 공격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적의 우두머리는 민간인 부녀를 강제로 유괴해 사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높여야 했다. 텡충성 시화거리(西華街)에 오락시설 하나를 만든 뒤, 매국노는 동포 여성들 14명을 강제로 그곳에 끌고 갔고 적군이라는 신분만 들이대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즐길 수 있었다. 가격은 시간당 군표 5원을 받았고 전투 부상자들은 무료였다.” 「조선소녀음」 중에도 “민가에 딸이 있을 경우 혼인을 금지한다. ‘황군’의 징모를 기다리라.”는 내용이 있으며, “옛 왕비 민씨의 친족”인 “동쪽 이웃집 동생”과 “세 살짜리 유복자가 있”는 “남쪽 이웃에 살던 과부”조차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양저우의 일본군은 자살하고 있다」와 〈치어우즈〉 속의 일본인 여성 치어우즈는 원래 남편 궁이(宮毅)와 함께 작은 담배 가게를 열어 생계를 유지했으나, 궁이가 징병된지 얼마 되지 않아 치어우즈도 강제로 징모되어 중국에 와서 몸으로 “황군을 위로”하게 되었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종종 혼란을 틈타 부녀자들을 “위안”이라는 호랑이 소굴로 끌고 갔다. 「내가 샤촌에 머물렀을 때」의 ‘전전’ 역시 일본군에게 잡혀가 ‘위안부’가 되었다. 전전의 집은 원래 산 위에 있어서 일본군이 왔을 때 빨리 도망갈 수 있었으나 당시 샤다바오(夏大寶)와의 자유연애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전전은 옥하여 산 아래에 있는 성당 신부를 찾아가 “수녀”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공교롭게도 하필 그날 일본군들이 쳐들어 왔고 전전은 미처 도망가지 못하여 일본군에게 잡혀간 것이었다. 「난징의 한 소녀」에서의 난징 소녀 역시 일본군에게 잡혔지만 그녀는 자결하는 방식으로 ‘위안부’라는 운명을 끝내 거절했다. 량야산(狼牙山) 지역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노략질은 더더욱 치를 떨 정도이다. “.....일본군들이 백여 명의 부녀자를 둘러싸고 그들에게 옷을 벗기를 강요했다. 그리고는 그 옷을 모두 불에 태워 버렸다. 이어 이 벌거벗은 여성들에게 일본군을 위해 물을 기르고, 채소를 다듬고, 닭을 삶아지고, 총탄을 들고 수십 리 길을 걷는 등 고역을 시키고는 자신들은 옆에서 히히거리며 구경하고 있다가 산비탈길 아무데서나 잡아다가 강간했다. 밤이 되면 짐승 같은 일본군을 분대별로 나누어 여성들을 윤간했다. 이렇듯 하늘에 사무치는 악랄하고 폭력적인 잔악행위는 일본

군이 갔던 마을마다 발생했다.”<sup>12</sup>

한편, 어떤 식으로 모집되었든 ‘위안부’들의 처지는 극한 상황 그 자체였다. 그녀들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육체로 일본군의 욕구를 채워야 했다. 「일구폭행기략」에는 일본군의 짐승 같은 폭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민가들은 폐허가 되었고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변화한 거리마저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이 처참한 광경은 ‘원정’에 나선 ‘정복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심심함을 느끼게 했고 잇달아 그들은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의 여자를 떠올렸다. 그들은 유지회(維持會)의 매국노들을 시켜 도시 내 곳곳에서 부녀자를 찾아내 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미쳐 날뛰던 매국노들은 며칠간 분주히 돌아치더니 놀랍게도 200명이 넘는 가련한 여성 동포들을 잡아다가 큰 절에 가두어 놓았다. 잡혀 온 여성들은 하루 종일 발가벗은 채로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짐승 같은 병사들의 ‘집단 강간’ 상대로 내버려졌다.” 「내가 사촌에 머물렀을 때」는 ‘위안부들’이 겪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 적나라하게 재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일은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당시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정말 마음이 쓰라리죠”라는 전전의 담담한 말을 통해 그녀의 내심에 뿌리박은 강렬한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소설 속의 여성 간부인 아귀이(阿桂)는 전전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쏟았고 이 일을 얘기하면서 계속 한탄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정말 불행인 거 같아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에 시달린 수많은 위안부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거나 불구가 되는 불행한 운명이었다. 「새로운 신념」에서 13살의 인구(銀姑)는 나이도 어린데다 몸이 약해 일본군 여러 명으로부터 윤간을 당한 후에는 겨우 숨이 붙어 있을 정도였다. 인구가 이제 더는 “위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바로 그녀를 담벼락 한 모퉁이에 내다 버렸다. 그 후 그녀가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 소설은 “아마 개가 뜯어먹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사

12 晋察冀边区第三专区各界抗日救国联合会, 「为狼牙山周围七十村被敌寇烧杀抢掠奸淫之灾难同胞提起控诉书[N]」(晋察冀边区第三专区行政督察专员公署), 『晋察冀日报』, 1943. 6. 6.

촌에 머물렀을 때」의 전전은 다행히도 적의 소굴에서 탈출했지만 결국은 “가볍지 않은 병”에 걸렸다. “코조차 문드러지는 병을 얻고”, “쩍쩍쩍 걸어 다녔으며” 그녀의 손은 “유달리 뜨거웠다.” 「조선소녀음」은 조선인 ‘위안부’들을 다음과 같이 재현했다. “남들 앞에서 억지웃음을 짓고, 거울 앞에서 화장하며 슬피하네.” 그리고 옛날 왕비의 친족인 민씨 성의 소녀가 고통과 시달림 속에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밤 나지막이 흐느끼는 소리 들리더니 새벽녘에 깊은 골짜기에 시체로 버려졌네.”라고 읊었고, 또 세 살짜리 유복자와 생이별한 최씨 성의 과부가 정신 이상에 걸려 목숨만 붙어 있을 뿐 죽은 것과 다름없는 처지인 것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니, 상점한 피골만 남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네.”라고 읊기도 했다.

일본군은 명령을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는 ‘위안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살육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구폭행기략」에는 일본군이 연달아 일어나는 ‘위안부’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공갈과 협박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을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위안부’ 여성들을 거리낌 없이 마구 죽이기도 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위안부들의 자살을 막을 수 없게 된 황군은 인내심을 잃고 미쳐 날뛰었다. 해가 나지 않고 어둡고 흐린 어느날, 그들은 남아 있는 백여 명의 불쌍한 여자 동포들을 후치우산(虎丘山) 옆에 끌고 가서 ‘통쾌하게’ 기관총 소사를 하여 순식간에 백여 명의 유린당한 여성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렇다고 일본군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위안부’들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준 것은 아니다. 일본군은 여전히 그녀들을 멸시하고 그녀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일본군의 중군 영기 조사-텅충성 안 불쌍한 인간들」에는 일본군이 괴멸당하기 직전 ‘위안부’를 학살했던 사건이 기재되어 있다. “12일인가 13일 저녁, 적군은 잔인무도한 수단으로 이 가련한 희생양들을 죽였다. 그중에서 기녀들의 심부름을 하던 열 살 전후의 중국 소녀가 간신히 도망쳐 나와 증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그녀들은 전부 큰 방공호 안에 숨어 있었는데 어느날 새벽 갑자기 한 일본 군관이 와서 권총으로 한 명 한 명 쏘아 죽였다는 것이다. 모두 열세 명이었는데 이 광경을 본 소녀가 놀라서 기절해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14일 오전, 중국군이 텅충의 마지막 거점을 탈환했을 때 벽 틈 안에서 십여 구의

여성 시체를 발견했다. 모두 기모노를 입거나 예쁜 양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들은 모두 눈이 가려져 있었고 시신은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살아생전에는 일본군의 성욕을 채우는 희생양이 되었고, 마지막 순간마저도 잔인한 사형을 당했다. 그녀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단 말인가?”

그러나 일부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비인간적인 생활에 치를 떨며, 차츰 저항과 각성에 이르렀다. ‘위안부’ 소재의 항전문학 작품은 이러한 ‘위안부’들의 저항 행위에 대해 열정적으로 예찬했다.

그 중에는 도망, 자살, 적군 살해와 같은 본능적인 저항 행위가 포함된다.

『새로운 신념』 중 57세의 천(陳) 할머니는 일본군에게 잡혀가 고역은 물론 능욕과 학대까지 당하는 바람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몰골이 되었으나 이 군센 노인은 밤을 틈타 악마의 소굴에서 도망쳐 나와 기어서 자기 집에 돌아갔다. 「내가 샴촌에 머물렀을 때」에서 전전 역시 일본군에 잡혀갔다가 몇 번이나 도망쳐서 돌아오지만 일본군의 정보를 엿듣는 공작을 맡게 되면서 다시 위안소로 파견되기도 했다.

『쿤밍 통신』은 텅충 시화거리에 있는 “오락부”의 중국인 ‘위안부’가 “유린을 견딜 수 없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일구폭행기략」에서는 중국인 ‘위안부’들이 너도나도 자살한 일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수치와 고통은 당연히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살이 증가하자 ‘위안부’가 줄어들었다. 일본군들에게 있어 밥은 한 끼 적게 먹을 수 있지만 ‘위안부’가 한 명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갈 협박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여자 동포들의 자살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유린당한 ‘위안부’들의 크나큰 고통이 공갈 협박으로 줄어들 리 없었다. 자살하는 여성들은 줄어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늘어나기만 했다.” 「적군에 짓밟힌 여성 동포-치시엔 통신」 속 여자 주인공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후 절개를 지키고자 자살하려고 했다. 「양저우의 일본군은 자살하고 있다」는 일본군 사병 궁이(宮毅)와 그의 아내인 일본인 ‘위안부’ 치어우즈(秋子)가 동반 자살한 사건을 보도한 것이다.

「일본군의 종군 영기 조사-텅충성 안 불쌍한 인간들」은 다이족(倭族) ‘위안부’ 왕야치웅(王姬琮)이 일본군에 분노해 저항했지만 적을 죽이지는 못한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당시, 텅충에서 일본군은 30여 명의 중국 아가씨들을 붙잡아 ‘위안부’로 만든 상황이었으나 중국군이 이미 텅충성을 물 썰 틈이 없이 포위해버렸다. 중대장 타이티엔수웨이(太田岁)는 일본 군인으로서의 군센 무사도 정신을 갖고 있는 자로 부대 내에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일찍이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다. 매일 밤 ‘위안부’를 찾아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 ‘위안부’는 왕야치웅이라는 19살밖에 안 된 다이족 소녀였다. 매일 타이티엔이 악마처럼 괴롭혔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타이티엔이 다시 육중한 신체로 그녀를 짓눌렀을 때 말할 수 없는 굴욕감과 원한에 가득 찬 그녀는 타이티엔의 고향에 상처를 냈다. 왕야치웅의 뜻밖의 행동에 광분한 타이티엔은 그녀의 가슴에 군도를 휘둘렀다.” 『춘레이』에서는 일본군에 의해 소집된 메이 아주머니가 일부러 일본 군관을 현혹해 가위로 찢러 죽였다. 「난징의 한 소녀」 중 일본군에 잡힌 난징의 소녀가 했던 행위는 더더욱 장렬하다. 그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를 거부하자 구금실에 감금당하게 되었다. 기회를 틈타 문을 부수고 나온 그녀를 발견하고 세 명의 일본군이 가로막자, 그녀는 식칼로 세 적군을 내리쳐 죽인 후 자신도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 생명을 끝냈다.

다른 한 부류는 각성 이후의 저항 행위—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고, 정보를 수집, 전달하거나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는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위안부’라는 경험은 지극히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기에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 경험을 감추고 입에 올리지 않는다. 「새로운 신념」 중 천(陳) 할머니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온 후 촌민들의 적군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항일의 대오에 가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 천 할머니는 주변 마을까지 가서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듣는 사람이야 어떤 심정이든, 자신의 체면, 고통 따위 역시 뒤로 한 채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내가 샴촌에 머물렀을 때」의 ‘위안부’ 전전은 위안소에서 도망을 나왔으나 정보수집을 위해 다시 자원하여 불구덩이로 돌아간다. 고난의 경험은 이 연약한 젊은 여성의 “마음을 단단하게(心變硬)” 만들었다. 그 “단단함”은 적의 학대를 이겨내고, 중대한 사명을 짊어질 수 있을 정도였다. “올해 가을이 되자 병이 심하게

도지더니 사람들 말로는 내 뱃속이 문드러졌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급하게 알려야 할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대신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날 밤 어둠 속을 더듬으며 혼자 삼십 리 길을 돌아왔는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 더는 걷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만약 다급하지 않은 일이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오지 않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다, 예잇, 일본 놈들한테 발각될까봐 무서웠고, 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돌아와서는 꼬박 일주일 동안 잠들었다가 몸을 추슬러 다시 일어났지요.”<sup>13</sup>

「메이즈 꾸냥」 중 일본인 ‘위안부’ 메이즈는 항일대오 속 한 명의 반전 용사로 성장하게 된다. 메이즈는 일본 하층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징병으로 입대한 후 중국에서 생명을 잃었고, 할머니는 이 때문에 울다가 눈이 멀었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메이즈는 약혼자인 텅티엔(藤田)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꿈이었으나 텅티엔 역시 징집되어 상하이 부대로 가게 되었다. 메이즈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을 꼭 찾고자 위로단을 따라 중국에 건너오지만 그녀에게 들려온 것은 텅티엔의 전사 소식이었고 자신 또한 영기로 배치되었다. 메이즈는 고단한 삶의 역경을 겪으며 “황군”이 중국에서 저지르는 죄악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누가 당신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까? 누가 당신의 애인을 죽인 건가요?”라는 반전인사의 물음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일본제국주의 파시즘과 침략전쟁의 죄악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그녀와 일본군 비행기 조종사 중티아오(中条)는 유격대가 진격해 왔을 때 기회를 틈타 중국군대에 스스로 입대했고 중국군 사령관의 접견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조선의용대에 편입되었고 항일대오의 용감한 전사로 성장하게 된다.

### 3.

사상적 경향으로 볼 때 ‘위안부’ 제재의 항전문학 작품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지만 협소한 민족주의보다는 국제주의 혹은 인도주의와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

13 덩링, 김미란 역,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 창비, 2012년, 28쪽의 번역.

고 있었으며, 또 어떤 작품들은 5.4 신문화 운동 이래의 계몽적 경향을 고수하기도 했다.

‘위안부’의 피눈물 나는 생활을 묘사하는 것이든 저항과 각성을 예찬하는 것이든 그 직접적인 목적은 모두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중국 군인과 민중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 저항 의지를 고무시키는 것이었다. 작가의 이러한 의도는 대부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난징의 한 소녀」는 소녀가 생명을 걸고 지킨 자신의 정조와 3명의 적군을 죽인 일을 서술한 뒤 남자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논평을 한다. “그녀는 한 명의 소녀였지만, 3명의 적을 죽일 수 있겠네. 생각해보라,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선소녀음」은 또 조선인 위안부의 불행한 운명을 읊조림과 동시에 반복해서 망국의 고통을 강조했다. “남자 아이를 낳아도 여자 아이를 낳아도 모두 가망이 없다네, 나라가 무너지고 집안이 망했으니 당연한 이치라네.” “한성의 성벽은 높고 한강은 깊다네, 누가 강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줄까? 끝없는 망국의 한을 알고 싶다면, 조선 소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오.”와 같은 시구들은 식민지 조선인들이 느끼고 있는 망국의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인들을 망국노가 되지 않도록 각성시키고자 했다. 신문, 잡지의 편집자들 역시 고심했다. 주간 잡지인 『군중』이 「적군에 짓밟힌 여성 동포-치시엔 통신」을 게재할 즈음은 3.8 국제여성의 날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편집자들은 이를 계기로 게재 원고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여 독자들로 하여금 적들에 저항하는 실제 행동으로 이 명절을 맞이할 것을 요청했다. “이 편지는 리어우롱츠(池溶池)가 우양(舞陽)에서 보내온 적나라한 보고이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적군이 휘두르는 무차별한 폭력 속에서 우리의 수천만 여성 동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이 통신을 읽고 나서 과연 우리는 3.8 국제여성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 작품들은 적군들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강렬한 민족주의 정서를 드러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주의와 인도주의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인도주의를 적절히 결합해 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당한 후 강제로 중일전쟁에 가담하게 되었다. 비록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식민통치에 저항하고 침략전쟁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통 민중들은 순순히 전쟁터로 물자와 인력을 수송



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위안부’ 소재 항전문학 작품은 조선인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드러냈다. 「조선소녀음」은 식민지 조선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처하게 된 재난 상황을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에서 매일 곡소리가 들리네. 남자는 전쟁터에 내몰려 죽임을 당하고, 여자는 사지로 끌려가네.”라는 시구로 묘사했으며, 포로가 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중국 군민의 인도주의적 온정은 “포로가 되면 군인에게 죽는 줄 알아서, 치료해준다는 장군의 말을 믿지 못했네. 정성스러운 간호는 위로가 되었지만, 꺾인 꽃가지는 시들어가네.”라는 시구로 표현했다.

침략전쟁을 발동한 일본에 대해서도 적개심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협박을 당하는 하층 노동자와 군국주의 세력을 구분해 전쟁에 휘말리게 된 하층 민중들에 대해서는 동정을 표시했다. 「양저우의 일본군은 자살하고 있다」, 〈치어우즈〉, 「메이즈 꾸냥」과 같은 작품들은 일본 하층민의 “남편은 군대가 징집되고 아내는 창기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에 깊은 동정을 드러내고 진보적인 일본 지식인들의 반전 활동을 열정적으로 찬양한다. 특히 이 작품들 중에는 일본의 평화주의자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메이즈 꾸냥」중 ‘위안부’인 메이즈는 중국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중티아오(中条)에게 “생각해봐, 만약 중국군이 당신의 집을 불사르고 재산을 빼앗고, 아내와 어머니를 간음하고 아들마저 전쟁터에 끌려가 중국 부상병에게 수혈을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라고 하는가 하면 중티아오가 충칭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메이즈는 입이 닳도록 그를 말리며 “아니, 또 충칭을 폭격한다고? 그것도 80대라니! 세상에, 이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당신은 폭격이 지나간 후의 참상을 아마 모를 거예요. 어떤 집은 온 가족이 기와더미 속에 묻혀 버리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어도 자칫하면 남편의 시체마저 찾을 수 없게 되죠. 나는 비록 폭격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황군’이 이 땅을 폭격한 후의 폐허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수많은 행복한 가정들과 그들이 대대로 한 푼한 푼 어렵게 일군 모든 가산이 불타버렸죠....중티아오, 나는 당신이 제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탁이에요. 나는 내 애인이 인류의 도살자가 되는 것을 내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라고 하며 그에게 병에 걸린 척하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이들 작품은 또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일본 인민과 손잡고 평

화롭게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소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치어우즈〉 속에 있는 합창곡 〈손을 잡자(携手歌)〉, 〈자유해방승리가(自由解放胜利歌)〉의 가사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손을 잡자/ 타국의 동포여/ 전진하자/ 타국의 동포여/ 강물 위에 달빛이 넘실거리는구나/ 넘실거리려”, “강남의 버드나무/ 전쟁터에 깔려 있네/ 다같이 즐겁게 노래하자!/ 천리강산도 같이 노래하네/ 하늘의 달도 기쁨에 넘치네/ 이게 바로 동아시아 대륙의 본 모습/ 모두 함께 노래 부르자/ 랄랄라…/ 이게 바로 동아시아 대륙의 본 모습/ 모두 함께 노래 부르자/ 너희들은 자유다/ 우리들은 해방이다!/ 너희들은 자유다/ 우리들은 해방이다!/ 자유/ 해방/ 자유/ 해방”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해볼 때 「내가 샴촌에 머물렀을 때」는 분명한 계몽의 지를 드러낸다. 이 소설은 ‘위안부’의 삶을 그리고 있지만, 전전이 일본군의 학대를 받은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전전이 집에 돌아온 후 받았던 멸시의 시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전전이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가 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으나 그녀가 ‘위안부’라는 신분을 이용해 중국 항일 진영에 일본군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한 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 부터 최소한의 동정과 존중은커녕 그들의 이야깃거리와 비웃음 거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볼 때 전전은 “버려진 쓰레기”에 다름 아니었으며, “헌신짝(破鞋)<sup>14</sup>보다 못했다”, 심지어 마을 여자들은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우월감을 되찾았고 자신들은 순결하고 강간당한 적이 없다며 으쓱거렸다.”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전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누구나 나를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아무도 나를 원래의 전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변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자면 마음이 좀 단단해진 것 뿐이죠.” 전전에게 있어 일본군의 폭행은 간신히 참아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적이고 그녀는 적군으로부터 정보를 빼내는 공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전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멸시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의 친지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며 바쁘게 사는 것이 집에서 살거나, 친지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

14 푸어세(破鞋). 음란하고 정조 관념이 없는 여자라고 멸시하는 차별어.-역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위안부’이면서 항일 여성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전은 이렇게 황급히 자기 고향을 떠났다. 소설은 항일 근거지의 실제 생활을 리얼하게 재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신민주주의 정책을 활발히 펼쳐나가는 항일 근거지에서 항일 여성 영웅 전전은 오히려 이런 취급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전전의 가슴에 사무치는 고통은 당시 항일 근거지에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봉건적 관념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덩링은 해방구로 왔지만, 5.4 신문화 운동이 불어넣은 계몽사상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아마도 덩링은 사람들에게 사상 계몽이 정치 계몽과 똑같이 중요함을 알리려 한 것 같다.

## 한국어로 도착한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문학 연구

한국의 학술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문학 연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논문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국어로 쓰인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의 논문 「한국인‘위안부’ 제재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 대한 고찰」(『아시아문화연구』, 2016) 이외에 덩링(丁玲) 등의 특정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문학 현황과 관련된 논문에서도 주로 한샤오와 뉴린제의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학을 연구하는 한국어 사용 연구자들이 중국어로 쓰인 논문을 읽을 수 없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동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만큼, 일본군‘위안부’ 문학도 피해지역 전역에서 생산되어 왔다. 아시아의 피해지역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니, 국경을 넘으면 또 다른 언어로 일본군‘위안부’ 문학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전쟁의 상황과 피해의 상황이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문학화 되었지만, 자료의 일차적인 접근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이상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 있는 ‘여자들에게’ 비에는 일본군의 피해를 받았던 일본군‘위안부’들이 사용했던 12개의 언어로 평화의 기도문이 쓰여 있다. 이 언어들로 일본군‘위안부’들의 삶도 문학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형상화 했을 것이다.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발굴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동아시아 곳곳에 남아 있다. 아시아의 다양한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학과 연구에 관심을 갖고 번역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에 번역한 왕쉐전(王學振)의 논문 「抗戰文學中的慰安婦題材」(2012)은 한국에서 발표된 다른 논문들 중에 계속 언급되지만 중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연구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논문이었다. 번역자 중 한 명인 나(장수희)는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이 논문을 찾아놓았는데, 논문이 나온 후 10년이 흐르도록 아무도 이 논문을 번역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초 부산에 체류 중이던 중국 남통대학교의 김성화 선생님과 함께 직접 번역할 것을 의기투합하였고 저자와 연락이 닿게 되어 논문 번역에 대한 허락을 받아 『여성문학연구』에 신게 되었다. 번역했다고 해도, 번역된 논문을 실을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번역 논문은 학회에도, 번역자에게도 아무런 실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번역 논문의 게재를 허락해 주신 한국여성문학학회 편집위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중국은 전쟁터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재현되어 있는 문학작품들이 생산되었다. 이 논문에서 왕쉐전은 항일전쟁 시기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작품들이 다양한 장르와 작가군에서 생산되었음을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가며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자인 역사학자 소지량(蘇智良)과 달리 왕쉐전은 문학 연구자로서 그동안 꾸준히 중국 현대문학 작품 중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작품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중국 내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중국의 1차 자료들을 제시하고, 전문이 인용되어 있는 작품도 있어 너무 반갑다.

이번 논문 번역 소개를 계기로 이 논문에서 언급된 작품들에 대한 번역 작업과 동시에 각각의 작품의 경향과 작가들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가 계속되어, 보다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김성화·장수희